

<2019 지방직 7급 채용 가답안 B책형 기준>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①	③	②	②	②	④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①	③	④	④	③	④	①

1. 정답 ②

[자료 분석]

㉠에 해당하는 시대는 신석기 시대이다. 제주도 고산리 유적, 이룬 민무늬 토기,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 등의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②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 옷이나 그물 등을 만드는 원시적 수공업이 이루어졌다.

[오답 피하기]

- ① 고인돌과 간돌검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유물이다.
- ③ 철기 시대의 모습이다. 춘추전국시대의 연과 제에서 사용한 명도전과 진의 반량전 등 중국 화폐는 우리나라 철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다.
- ④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농기구이다.

2. 정답 ③

[정답 해설]

- (다) 김헌창의 난은 822년(헌덕왕 14) 신라 웅천주(지금의 충남 공주)의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 (나) 김윤후는 몽골의 2차 침입 시기인 1232년(고종 19) 처인성(지금의 용인)에서 몽골의 원수 살리타를 활로 쏘아 죽였다.
- (가) 이종무는 조선 세종 대인 1419년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 (라) 이시애는 1467년(세조 13) 세조의 집권 정책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세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유향소를 폐지하고 함길도를 좌우도로 나누어 통치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란의 근거지가 되었던 길주는 길성현으로 강등시켰다.

3. 정답 ①

[정답 해설]

ㄱ. 『과농소초』는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편찬한 농서이다. 박지원은 이 책에서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한 농업 생산력 증대에 관심

을 기울였다. 『해동농서』는 서호수가 편찬한 농서로, 정조의 명으로 우리 고유의 농학을 중심에 두고 중국 농학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새롭게 체계화하였다.

ㄴ. 조선 후기 일부 농민들은 담배, 인삼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시장에 내다 팔아 수입을 올렸다. 17세기 초 일본에서 전래된 담배는 농촌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였고, 인삼은 청과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무역 상품이었다. 도시 근교에서는 채소 재배가 성행하기도 했다.

[오답 피하기]

- ㄷ. 유황, 구리 등은 일본에서 수입(수출X)한 상품이다. 조선은 청에서 수입한 비단 등을 일본에 넘겨주는 중계 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 ㄹ. 조선 후기에는 수확량의 일정 비율로 소작료를 내는 타조법에서 일정 액수로 소작료를 납부하는 도조법으로 전환되어 갔다.

4.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대한제국 정부는 미국인 측량 기사를 초빙하여 전국적으로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일부 지주에게 지계를 발급하기도 했다.

[오답 피하기]

- ①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규정이 포함된 조·일통상장정(개정)은 대한제국 수립(1897) 이전인 1883년에 체결되었다.
- ② 삼정이정청은 삼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관서로, 1862년(철종 13) 임술 농민 봉기를 계기로 설치되었다.
- ④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과거제 폐지 등의 개혁이 실시된 것은 대한제국 수립(1897) 이전 제1차 갑오개혁(1894) 시기이다.

5. 정답 ②

[자료 분석]

낙랑·대방군 축출은 미천왕(313·314), 모용황에 의한 환도성 함락은 고국원왕(342), 전진의 순도가 불교를 전래한 것은 소수림왕(372), 평양 천도는 장수왕(427), 백제 한성 함락(475)은 장수왕 시기의 일이다.

[정답 해설]

② 고구려 고국원왕은 371년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6. 정답 ②

[자료 분석]

㉠은 결사표를 작성한 원광, ㉡은 문무왕의 도성 축조를 반대한 의상에 해당한다. 결사표는 608년(진평왕 30) 신라의 승려 원광이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기 위해 쓴 글이다. 원문은 전하지 않지만 『삼국사기』에 의하면, 611년에 신라에서는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이 결사표로 군사를 청했고, 이에 수나라 양제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612년에 고구려를 침략하였다고 한다.

[정답 해설]

② 세속오계는 신라시대 화랑이 지켜야 했던 다섯 가지 계율로, 원광이 작성했다. 세속오계는 사군이충(事君以忠)·사친이효(事親以孝)·교우이신(交友以信)·임전무퇴(臨戰無退)·살생유택(殺生有擇)의 다섯가지 계율로 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9층 탑 건립을 건의한 인물은 자장이다.
- ③ ‘무애가’를 부르면서 대중을 교화시킨 인물은 원효이다.
- ④ 원측에 대한 설명이다. 원측은 당에 유학하여 유식 불교의 깊은 뜻을 깨달아 당 수도의 서명사에서 서명학과를 성립하여 그의 학설을 강의하였다. 또한, 현장의 사상을 계승한 규기와 논쟁하면서 교리 이해의 우월성과 독자성을 보였다.

7. 정답 ②

[자료 분석]

밑줄 친 ‘왕’에 해당하는 인물은 통일신라 경덕왕이다. 전국의 지명을 중국식으로 개칭한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② 경덕왕 때(757)는 귀족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하여 농민에 대한 귀족의 자의적 수탈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왕권은 다시 약화되고 말았다.

[오답 피하기]

- ① 국학은 통일신라의 유학 교육 기관으로 신문왕 때 설립되었다.
- ③ 신라 하대 원성왕 때(788)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마련하였다.
- ④ 성덕왕은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722)해 토지 및 백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8. 정답 ④

[자료 분석]

밑줄 친 ‘인물상’에 해당하는 인물은 고려 태조 왕건이다. 현릉(顯陵)은 고려 태조의 왕릉이기도 하다.

[정답 해설]

④ 고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940).

[오답 피하기]

- ① 유학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한 것은 고려 성종이다.
- ② 거란 침입에 대비해 광군을 조직한 것은 고려 정종 때이다.
- ③ 개경을 ‘왕도’, 서경을 ‘서도’라 칭한 것은 고려 광종이다.

9. 정답 ④

[정답 해설]

ㄷ. 고려 시대에는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으며, 공을 세운 사람은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ㄹ. 공신과 종실,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 등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료가 될 수 있었다.

※ 조종(祖宗) 묘예(苗裔)는 태조의 후손을 의미.

[오답 피하기]

ㄱ. 음서는 고려 성종 때 성립된 것으로 보며, 기록상으로는 목종 때부터 음서 관련 사례가 나타난다.

목종(穆宗) 즉위년(997)에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문관(文官)·무관(武官) 5품 이상의 아들에게 음직(蔭職)을 제수(除授)하라.”라고 하였다. - 고려사 -

ㄴ. 고려 시대에는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더라도 승진에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위 관직 진출 가능).

10.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의 밑줄 친 ‘왕’에 해당하는 인물은 공민왕이다. 홍건적의 침입(2차, 1361)으로 복주로 피신했다는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④ 『사략』은 1357년(공민왕 6) 이제현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현재는 『사략』에 실린 ‘사론’만이 남아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향약구급방』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의학 서적으로, 1236년(고종 23) 대장도감에서 간행되었다.
- ② 정치도감은 1347년(충목왕 3)에 설치되었던 폐정개혁기관이다.
- ③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우왕 때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11. 정답 ②

[자료 분석]

㉠에 해당하는 단체는 독립협회이다.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 개최, 헌의 6조 채택 등의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② 독립협회는 자주 국권 운동을 벌여 러시아의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시켰다.

[오답 피하기]

- ① 흥범 14조는 제2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조선 정부(고종)에서 발표하였다.
- ③ 국채 보상 운동은 일본에서 빌려 온 차관을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으로, 국채 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④ 방곡령은 일부 지방관들에 의해 선포되었다. 1889년 황해도 관찰사 조병철과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선포하였다.

12.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의 밑줄 친 ‘이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통학 열차를 이용하던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충돌에서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이 운동은 일제 강점기 최대의 학생 운동이자,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정답 해설]

③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현지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진상 보고를 위한 민중 대회를 개최하려 하였다. 민중 대회 계획은 사전에 일본 경찰들에게 발각되어 신간회 간부와 회원들이 대거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오답 피하기]

- ① 조선 형평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조직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백정들에 대한 신분 차별과 멸시를 타파하기 위한 형평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조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제2차 조선 교육령(1922)에 의해 고등 교육이 가능해지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일어났다.
- ④ 조선 민흥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전인 1926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자치 운동을 반대하면서 일부 사회주의자들과 조직한 단체이다.

13. 정답 ①

[자료 분석]

제시문의 밑줄 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은 신채호이다. 조선혁명선언은 1923년 신채호가 작성한 것으로, 의열단이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정답 해설]

- ① 『독사신론』은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1908년 8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연재한 미완성 논설로,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해 서술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진단학회 조직을 주도한 것은 이병도와 손진태이다.
- ③ 동학은 3대 교주인 손병희 때 천도교로 개편되었다(1905).
- ④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한 것은 백남운이다.

14. 정답 ①

[자료 분석]

㉠은 향, ㉡은 부곡에 해당한다. 신라 때부터 존재했다는 내용(‘소’는 고려 시대에 등장)과 고려에서 천하고 힘든 일을 맡게 했다는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① 고려 시대의 향리는 지방의 속현과 향·소·부곡에서 향직을 세습하며 조세·공물 징수,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를 담당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향, 부곡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고 관직 진출에도 제한을 받았다.
- ③ 고려 시대의 백정은 일반 농민들을 의미하며, 조·용·조를 부담하였다.
- ④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매매나 증여, 상속이 가능했던 것은 노비이다. 향, 부곡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을 받기는 했지만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었다.

15. 정답 ③

[정답 해설]

- ① 조선은 초기에 유구, 시암, 자와 등이 사절을 보내와 그들과도 교류하였다. 특히 유구와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져 유구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 ② 계해약조는 1443년(세종 25) 대마도주와 세견선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으로,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으로 무역량을 제한하였다.
- ④ 조선은 여진과 일본에 대해 교린 관계를 유지하면서, 토벌과 회유의 양면 정책을 추진하였다. 회유책으로는 무역소 설치(여진)와 3포 개항(일본)이 대표적이며, 토벌책으로는 4군 6진 개척(여진)과 대마도 정벌(일본)이 대표적이다.

[오답 피하기]

- ③ 태조 때는 명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명에 대한 조공이 3년에 한 번씩(3년 1사)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1년에 3차례씩 정례적으로 사신 파견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종 때부터이다.

16. 정답 ④

[정답 해설]

- ① 조선왕조실록은 춘추관 내에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하여 사초, 시정기, 승정원일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 ② 임진왜란 이전에는 실록을 4부를 만들어 1부는 춘추관의 실록각에, 3부는 충주·전주·성주의 사고에 보관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5대 사고[춘추관·오대산·태백산·마니산(정족산)·묘향산(적상산)]에 보관하였다.
- ③ 『국조보감』은 실록 중에서 역대 왕들의 귀감이 될 치적을 모아서 간행한 것으로, 왕들의 정치 참고서로 이용되었다. 세종 때 처음 구상되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세조 때 처음 태조·태종·세종·문종 4조의 보감이 완성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④ 예문관 한림은 국왕과 대신들이 국정을 논의할 때 사관으로 참가하여 사초를 작성하였다. 시정기는 고려시대의 일록·일력을 계승한 것으로 각 관청에서 보낸 문서를 종합하여 다 음해에 날짜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17.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의 밑줄 친 ‘개헌안’은 2차 개헌안(사사오입 개헌)이다. 부결된 개헌안을 ‘사사오입’의 논리로 가결시켰다는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④ 2차 개헌안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오답 피하기]

- ① 1972년 7차 개헌(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실상 1/3 임명)
- ②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80년 5월 31일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이다.
- ③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는 1980년 8차 개헌의 내용이다.

18. 정답 ③

[자료 분석]

㉠에 해당하는 정당은 한국독립당이다. 1940년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의 통합을 통해 조직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③ 새로운 한국독립당은 명의상 한국독립운동의 주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집권당 구실을 담당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조선의용군은 1942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개편한 조선독립동맹의 당군이다.
- ② 신흥무관학교는 1919년 서간도 지역에 설립된 독립군 양성 학교로, 신민회가 설립한 신흥 강습소를 계승하였다.
- ④ 쌍성보(1932)와 대전자령(1933) 전투에서 활약한 것은 한국 독립군이다.

19. 정답 ④

[자료 분석]

2·8 독립선언 발표는 1919년 2월, 6·10 만세 운동 발발은 1926년의 일이다.

[정답 해설]

④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가)시기인 1919년 4월의 일이다.

※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기준(4월 11일)으로,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9월에 설립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대한광복회는 1915년 대구에서 조직되었다.
- ②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은 1938년이다.
- ③ 독립의군부는 1912년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되었다.

20. 정답 ①

[정답 해설]

㉠에 해당하는 것은 미·소 공동 위원회이다. 미·소 공동 위원회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할 목적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공동 위원회이다. 1946년과 1947년 2차례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로 결렬되고,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었다.